

明代 遼東防禦戰略의 變化와 防禦力의 衰退

南 義 鉉*

1. 序 論
2. 明初 遼東防禦와 指揮體系의 形成
3. 遼東都司 管轄範圍의 擴大 試圖와 限界
4. 邊牆體制로의 轉換과 防禦力의 弱화
5. 結 論

1. 序 論

본 논문은 明代 遼東¹⁾ 防禦戰略의 變化와 防禦力의 弱化라는 시각에서

* 강원대학교 사학과 강사

- 1) 명대 '遼東'의 개념은 '遼河의 동쪽', 遼東都司가 있는 '遼陽城', '遼東都司 관할지역'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明代에 편찬된 『遼東志』 「疆域」에서는 "東至鴨綠江五百三十里, 西至山海關一千五十里, 至北京一千七百里, 南至旅順海口七百三十里, 渡海至南京三千四十里"로 기록하고 있으며, 『籌邊碩畫』 역시 비슷한 범위를 遼東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明代에는 일반적으로 遼東의 범위를 遼東都司가 형식적으로 관할했던 지역을 많

遼東都司(遼東都指揮使司) 防禦體系의 形成과 變化過程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明은 건국 초기 北邊의 防禦가 시급하였다. 비록 元이 붕괴하였지만 몽골 세력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한 저항을 하고 있었으며, 遼東 역시 納哈出(나하추) 등이 세력을 형성하여 상당 부분을 점거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明初 大同, 宣府 등의 北邊과 遼東 등을 하나의 방어선으로 연결시키고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지역의 방어체계의 정비가 시급하였다.

일반적으로 明代 遼東都司와 그 군사방어체제를 연구한 성과물들은 明初 防禦體制的 形成過程 등 제도사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전반적인 성격을 분석하고 있지 못하다. 초기에 北元과의 전쟁이 가장 심각하였고 또한 군사방어체제의 기본적인 틀이 형성되었지만 明初에 형성된 방어체제는 여러 변화를 거치지만 후기까지 그 기본적인 형태가 지속되었다.

명 초기-중기-후기로 갈수록 요동정세는 변화되고, 변화에 따라 명의 遼東 防禦體系 역시 형성-정비-변화-쇠퇴라는 다양한 전략적인 변화과정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명 요동방어체제를 시간의 단절 속에서 각 시기를 연구한 성과들은 있지만 그 초기~후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연결시켜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 보려는 연구 성과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明代 遼東防禦體制的 變化과정을 명 요동정책의 전략적 변화과

이 지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明初 25衛 체제 속에 포함된 동쪽의 鴨綠江, 서쪽의 山海關, 남쪽의 旅順口, 북쪽의 開原에 이르는 遼東都司의 관할지역을 '遼東'의 범위로 지칭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遼東이라는 용어는 遼東都司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역을 지칭하며, 기타 지역은 여진지역, 몽골지역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遼東은 極東에 위치하면서 長城의 天下第一關인 山海關과 직접 연결되었으며, 9邊(明代 長城을 구성하는 9개의 重鎮)을 구성하고 연결시키는 동쪽의 전초기지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점하고 방어하는 것은 내몽골, 吉林, 黑龍江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고, 山海關, 北京, 나아가 中原을 보호할 수 있다는 군사상의 이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明朝는 遼東을 明代 9邊에 포함시켜 極東의 전초기지로 경영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궁동 사령부에 해당하는 遼東都司, 25衛와 所, 城堡, 驛站路, 海運網, 烽火臺, 邊牆 등 다양한 군사시설물을 수축하여 遼東都司 防禦體制를 구축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다.

정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보고 明代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遼東 군사력과 방어력, 遼東都司의 性格과 對外關係를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²⁾

이러한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본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遼東防禦體系의 形成過程을 주제로 설정하였다. 초기 明은 遼東에 遼東都司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사체제가 정비되지 못하여 北元과의 전쟁에서도 여러 차례 패하였으며 遼西 지방 역시 몽골군이 장악함으로써 山海關과도 단절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遼東의 일부를 점거한 明軍은 山東으로부터 旅順에 이르는 해로를 통해 모든 군수품과 군사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며 遼東都司와 25衛 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이는 곧 요동방어전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중반부에서는 초기의 遼東防禦體制를 이용하여 대외적으로 관할범위를 확대해 나가려는 시도와 그 한계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明初 遼東都司 防禦體系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된 衛所와 城堡의 설치, 驛站, 海運網 정비 등은 체제 내부의 발전을 정비하고 나아가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豆滿江 및 松花江 유역으로의 진출을 계획하였다. 黑龍江 하류 유역에 설치한 奴兒干都司는 黑龍江 유역의 여진 세력을 明의 관할범위 속에 넣으려는 대외적인 시도로 볼 수 있으며, 女眞 지역에 설치한 衛所들 역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조선과의 갈등을 야기한 鐵嶺衛와 三萬衛의 설치도 明의 대외 영향력의 확대와 시도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2) 明代 初期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遼東政策의 결과 永樂年間에 이르자 몽골親征, 奴兒干都司와 女眞衛所의 설치 등으로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으나, 中期로 갈수록 屯田 인구의 이탈과 관리들의 토지침탈, 衛所軍의 逃亡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後期에 이르자 이러한 모순은 극대화되어 지역 사령부에 해당하는 遼東都司는 내부적 개혁과 운영에 실패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여진·몽골 勢力의 成長을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그 支配力의 限界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遼東都司 防禦體系의 특징이기 때문에 초기에 집중된 연구 성과물들은 중·후기의 변화와 연결시켜 明代 遼東의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明의 이러한 시도는 난관에 부딪혔다. 우선 내부적으로 遼東都司를 구성하는 25衛는 永樂年間에는 屯田에 기초한 생산력의 향상과 인구의 확보 등으로 조직상의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점차 屯田 생산량의 감소로 식량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衛所의 군사들이 도망하는 등 방어체제에 문제점을 야기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衛所體制와 屯田 경영의 불안정은 驛站路의 運營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역부들의 부역을 가중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하였다. 초기에 정비된 遼東海運³⁾ 역시 명대 해양정책 특징 중의 하나인 海禁의 영향으로 山東과 遼東의 交易를 감소시키고 이는 결과적으로 遼東 經濟를 어렵게 함으로써 遼東의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후반부에서는 明 前期 遼東都司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防禦體制를 강화시키려는 전략적 변화 속에서 구상된 遼東邊牆의 修築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遼東邊牆은 명 전기 遼東都司 防禦體系의 弱화와 대외 세력의 성장이라는 원인과 연결시켜 전략적 변화의 일환으로 수축된 것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⁴⁾ 遼東邊牆은 築造過程 이외에 明 遼東 방어정책의 성격, 明과 朝鮮의 國境線 문제, 나아가 明朝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세력에 대한 지배력의 문제를 평가하는데 적절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3) 山東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遼東海運을 연구한 논문으로는 鄭炳喆의 「明末 山東과 遼東間의 交流와 그 性格」(『明清史研究』 第3輯, 明清史研究會, 1994): 「明 前·中期 山東의 人口移動과 社會變化」(『東洋史學研究』 第55輯, 東洋史學會, 1996): 「明末 遼東 沿海一帶의 '海上勢力」(『明清史研究』 第23輯, 明清史學會, 2005) 등을 들 수 있다.

4) 遼東邊牆을 연구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단행본으로 董耀會, 『瓦合集-長城研究文論-』, 科學出版社, 2004; 孟森, 『明代邊防』, 學生書局, 1968; 肖立軍, 『明代中後期九邊兵制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1; 劉謙, 『明遼東鎮長城及 防禦考』, 文物出版社, 1989 등을 들 수 있다. 논문으로는 武家昌, 王德柱, 「試探明代萬里長城東部起點」, 『北方文物』, 1990年 第1期; 薛景平, 「明遼東鎮長城東西兩端的實地考察」, 『北方文物』, 1996年 第3期; 刁書仁, 「明朝前中期東段邊界的變化」, 『史學集刊』, 2000年 第2期; 叢佩遠, 「明代遼東邊牆」, 『東北地方史研究』, 遼寧省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1985年 第1期 등이 있다. 이들 연구물들은 遼東邊牆의 축조과정을 서술하고 변장을 단순한 방어선으로 인식함으로써 邊牆과 遼東都司 지배력과의 관련성, 국경선으로서의 가능성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明代 遼東의 방어체제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근 몇 년간 東北 프로젝트(東北工程)를 통해 滿洲史를 자국의 地方史로 편입시키거나 왜곡시키고 있는 데, 明代 滿洲史 역시 예외가 아니다. 동북 프로젝트의 과제 속에는 明代의 疆域, 民族, 國境 문제가 포함되어 그 연구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는 데,⁵⁾ 모든 연구 성과물들의 공통점은 내몽골, 松花江, 黑龍江, 豆滿江, 鴨綠江 유역 등 滿洲 지역에 대해 明이 상당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발휘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은 만주를 지방사적 시각에서 연구하기 때문에 만주지역의 주변세력들, 곧 명대 高麗(朝鮮), 여진,⁶⁾ 몽골 등의 성장 과정과 滿洲와의 관계 등을 소홀히 다루고 있고, 서술에서 많은 부분을 왜곡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진 전지역을 明이 관할했다고 함으로써 朝鮮의 북진정책 내지 여진정책을 영토 확장 내지 여진지역을 약탈한 것으로 기술하는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결여하고 있으며, 遼東都司, 奴兒干都司, 女眞衛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진에 대한 明의 影響力을 확대해석하는 근거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향으로 중국의 성과물들은 鴨綠江과 豆滿江이 애초부터 明

5) 저서로 楊陽, 『中國的東北社會 一十四~十七世紀一』(遼寧人民出版社, 1991)와 『明代東北史綱』(學生書局, 1993); 李澍田, 『中國東北通史』(吉林文史出版社, 1993); 刁書仁 主編, 『中朝關係史研究論文集』(吉林文史出版社, 1995); 叢佩遠, 『中國東北史』1-6卷(吉林文史出版社, 1998); 顧頴剛·史念海, 『中國疆域沿革史』(商務印書館, 1999); 寧夢辰, 『東北地方史』(遼寧大學出版社, 1999); 肖立軍, 『明代中後期九邊兵制研究』(吉林人民出版社, 2001); 朱誠如, 『管窺集』(紫禁城出版社, 2001); 李治亭 主編, 『東北通史』(中州古籍出版社, 2003) 등을 들 수 있다.

6) 建州女眞을 연구한 최근의 논문으로는 河內良弘, 『明代女眞史の研究』(東朋舍, 1992); 江嶋壽雄, 『明代清初の女眞史研究』(中國書店, 1999) 등을 들 수 있다. 刁書仁, 「論明前期 韓采里與女眞與明·朝鮮之關係」(『中國邊疆史地研究』, 2002年 3月, 第12卷 第1期); 李婷, 「明前期朝鮮族移居遼東的原因, 途徑及開發貢獻」(『鄂州大學學報』 第9卷 第3期, 2002.7); 王臻, 「朝鮮太宗與明朝爭奪建州女眞所有權述論」(『延邊大學學報』, 社會科學版, 2003.9); 于曉光, 「明朝與朝鮮圍繞女眞問題交涉論析」(『歷史研究』, 2003年, 第1期 第19卷); 劉秉虎, 「建州女眞與朝鮮交涉之研究」(『大連大學學報』, 2003年 6月, 第24卷 第3期) 등이 있다.

과 朝鮮의 고정된 경계였으며, 遼東八站(鴨綠江~遼陽 사이의 8站)⁷⁾ 지역 역시 明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던 국경 중립지대 임에도 明의 관할지역으로 편입되었던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또한 여진 지역 중 永樂年間 黑龍江 하류에 설치한 奴兒干都司⁸⁾ 역시 여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설치하였지만 이미 宣德年間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明 後期까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서술하여 明代 여진지역을 明의 영토로 서술하고 있다.⁹⁾ 이러한 중국 연구 성과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明의 遼東防禦

7) 遼東八站 지역은 遼東都司가 설치된 遼陽으로부터 鴨綠江 사이에 8개의 站이 설치된 곳을 가리킨다. 이 八站은 高麗末에는 八站으로, 朝鮮 初期에는 東八站으로 그리고 明에서는 遼東八站 또는 遼八站으로 통칭되었다. 遼東八站은 朝鮮으로 明으로 들어가는 使行路로, 元末 紅巾賊의 亂, 元·明交替期の 혼란, 그리고 明初 北邊의 우환으로 明 시기 내내 전반적으로 정비가 되지 못했다. 이 지역은 明이 실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 요동공벌의 대상지역이 되기도 하였으며, 朝鮮과 明의 완충지대로 兩國 사이에 영토, 인구, 女眞을 둘러싸고 미묘한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전략적으로도 鳳凰山과 같은 천연의 要塞가 위치했기 때문에 군사 요충지로 중요한 곳이다. 遼東八站은 국경사적 시각에서도 朝鮮과 明의 실질적인 국경선이 鴨綠江이 아님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연구주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8) 奴兒干都司와 관련한 저서로는 楊陽 外, 1982, 『明代奴兒干都司及其衛所研究』(中州書畫社); 楊陽, 1988, 『明代遼東都司』(中州古籍出版社), 1991, 『中國的東北社會 十四~一七世紀』(遼寧人民出版社) 1993, 『明代東北史綱』(學生書局), 叢佩遠, 1998, 『中國東北史』 第3卷(吉林文史出版社), 河內良弘, 1992, 『明代女眞史の研究』(東朋舍), 江嶋壽雄, 1999, 『明代清初の女眞史研究』(中國書店) 등을 들 수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烏居龍藏, 「奴兒干都司考」, 『燕京學報』 第33期; 內藤虎次郎, 1970, 「奴兒干永寧寺記補考」, 『內藤湖南全集』 卷; 王綿厚 外, 1978, 「明代管理奴兒干的歷史新證」, 『文物』; 蔣秀松·王兆蘭, 1982, 「從永寧寺碑看明代東北各族的關係」, 『歷史教學』; 蔣秀松, 1990, 「關於奴兒干都司的問題」, 『民族研究』; 王鍾翰, 1997, 「明代女眞人的分布」, 『清史新考』(遼寧大學出版社); 楊陽, 2005, 「明代奴兒干永寧寺碑研究的諸問題論辨」, 『東北史地』; 楊陽, 2006, 「永寧寺碑文銘刻的奴兒干都司與黑龍江下流, 庫頁島的先居民族關係」, 『東北史地』 등이 있다.

9) 朝鮮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중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전통시대 '邊界'의 문제와 관련한 연구 성과들은 鴨綠江과 豆滿江을 明과 朝鮮의 國境線으로 확정함으로써 遼東八站과 같은 邊境地帶를 明 遼東都司의 관할지역으로 서술하고 있다. 명은 원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원이 지배했던 영역은 明의 영토이며, 따라서 高麗의 遼東征伐은 元을 계승한 明의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明 초기에 쟁점이 되었던 明의 鐵嶺衛 역시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高麗의 방해도 좌절된 것으로

體系를 중심으로 그 形成過程과 防禦力의 弱화를 고찰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明初 遼東防禦와 指揮體系의 形成

明은 洪武 20年(1387) 遼東 최대의 北元 세력인 納哈出과의 金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신속히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防禦體系를 정비하기 시작하였으며, 元 遼陽行省 지역을 회복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성하였다. 遼河 유역을 중심으로 遼東의 遼陽과 遼西의 廣寧을 그 중심에 두고 東으로 高麗(朝鮮)를 견제하는 한편, 北으로 松花江과 黑龍江 지역으로, 西로 내몽골의 大寧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여진지역과 내몽골 지역을 모두 통제하려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長城과 遼東을 견고하게 연결시켜 방어선을 일치시키려는 군사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 洪武 28年(1395)에 遼東都司 소속 25衛 체제를 기본적으로 완성해 나가면서, 마침내 25衛 지역 내의 기존의 府·州·縣 制度를 폐지함으로써 遼東都司와

인식하거나, 4郡 6鎮의 문제도 朝鮮이 군사력을 동원해 明의 舊土를 차지한 것으로 서술하는 등 그 서술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김한규는 『遼東史』(문학과 지성사, 2004) 명대 부분의 서술에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遼東都司, 奴兒干都司, 遼東邊牆, 女眞衛所 등 諸門題를 다루어 明代 遼東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한중관계사Ⅱ(아르케, 1999)에서도 요동을 둘러싸고 高麗(朝鮮)·明 사이에 발생한 각축과 갈등 등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朴元燾는 『明初朝鮮關係史研究』(知識産業社, 2002)에서 10여 편의 대외관계사 논문을 통해 明初 遼東의 歸屬問題, 明과 朝鮮의 女眞의 問題, 靖難의 役과 朝鮮의 對應, 15세기의 동아시아 정세 등을 주제로 다루어 遼東과 韓·中關係史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徐炳國의 「童猛哥帖木兒의 建州左衛研究」, 「凡察의 建州左衛研究」, 「朝鮮前期 對女眞關係史」, 金九鎮의 「麗末鮮初 頭滿江 지역의 女眞分布」, 「初期 毛憐兀兒哈 研究」, 「明代 女眞의 中國에 대한 公貿易과 私貿易」, 曹永綠의 「入官前 明·鮮時代의 滿洲女眞史」, 金渭顯의 「女眞의 馬貿易考」 등이 있다.

소속 衛所는 이 지역의 군사·행정·감찰·경제·법률·징세 등의 모든 권한을 담당하는 軍政合一의 성격을 갖는 기구가 되었다.¹⁰⁾

遼東都司의 설치에 高麗(朝鮮)에게도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行禮, 使行路 閉鎖, 貢馬 要求, 表箋, 女眞人送還 등 麗末鮮初 高麗(朝鮮)·明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은 모두 遼東都司의 설치 및 요동정세와 관련이 있었다. 결국 明은 遼東都司 방어체계를 공고히 하면서 양국 간의 교류를 정지시키고자 하였는데, 이는 당시 明이 遼東으로 진출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高麗와 北元의 연합이었기 때문이다. 明 건국 이후에도 北元은 高麗와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군사적 지원을 받으려고 접촉을 하고 있었고, 高麗 역시 遼東征伐을 단행하는 등 遼東을 둘러싼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明 初期 高麗와 北元에 대한 明의 태도는 매우 강경하였다. 이로써 明은 高麗에 대해 3年1使와 陸路를 통한 使行路 閉鎖라는 交流斷絶의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高麗(朝鮮)와 北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遼東都司를 통해 遼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다.¹¹⁾

10) 張士尊, 「明代遼東都司軍政管理體制及其變遷」,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年第5期, p. 70. 洪武 20年(1387)을 전후하여 遼東都司는 金州衛(大連 金州), 復州衛(瓦房店 復州鎮), 蓋州衛(蓋州), 海州衛(海城), 遼海衛(海城 牛庄鎮), 定遼左衛, 定遼右衛, 定遼前衛, 定遼後衛, 東寧衛(5衛의 治所는 遼陽에 있음), 瀋陽中衛, 瀋陽左衛(2衛는 瀋陽에 治所가 있음) 등 12衛를 설치하였는데, 구릉과 평원을 전략적으로 적절히 이용하면서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이 12衛를 중심으로 納哈出을 金山 전투에서 항복시킨 후 明朝는 점차 遼西 지역 5곳의 방어지점을 정하고 10개의 衛를 신설하였다. 이들 遼西地方의 衛는 義州衛(遼寧省 義縣)·廣寧左屯衛·廣寧中屯衛(錦州)·廣寧右屯衛(凌海右屯鎮)·廣寧前屯衛(綏中前衛鎮)·廣寧後屯衛(義縣)와 廣寧에 위치한 廣寧衛·廣寧中衛·廣寧左衛·廣寧右衛 등이다. 이 5개 지점이 확보되면서 遼東都司는 遼河 동쪽의 遼陽을 중심으로 開原 등의 遼東북부 지역과 遼河 서쪽의 大寧 등을 연결하는 하나의 防禦體系를 만들면서 遼東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11) 朱元璋은 明 건국 이전부터 高麗의 태도가 변할 경우 장차 자기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거나 정권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는 세력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복원세력이나 동북의 나하추, 그리고 張士誠 方國珍 등이 끊임없이 고려에 대해 교류를 요구해 오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朝鮮 건국 후에도 明의 고압적인 태도는 지속되었다. 洪武年間 遼東都司가 이미 그 방어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었지만 육로를 통한 사행은 戰馬 교역을 위한 遼東 入境 이외에는 철저히 금지되었다. 당시 明은 遼東都司를 비롯하여 定遼中衛, 定遼左衛, 定遼右衛, 定遼前衛, 定遼後衛 등 25衛 체제를 거의 갖추었지만 遼陽 이남지역, 곧 遼東八站 지역은 明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고 朝鮮과 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식량의 확보와 朝鮮의 군대를 상대해 싸울만한 전문적인 군대가 배치되지 않았다. 특히 그는 당시 朝鮮에 대해 “朝鮮은 國都에서 鴨綠江에 이르기까지 요충지에 비축하는 식량이 1만 석에서 10여 만 석에 이르고 東寧府의 女真人을 유인하고 있으며 … 그러나 遼東은 지금 군량이 모자라며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는 바 … 그들(조선)이 20만 대군으로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¹²⁾라고 하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진행하던 遼王의 궁실공사마저 정지시켰다. 이는 당시 遼東都司의 군사적 관심이 북변의 몽골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고려 및 조선에 대한 군사적인 준비가 매우 취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明初 遼東都司 防禦體系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山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北元勢力이 여전히 遼西를 장악하고 있어서 明軍은 山海關을 통해 遼東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명을 지원하는 군사와 물자는 모두 山東의 登州衛를 출발하여 海路를 통해 遼東으로 들어오므로써 山東은 遼東을 지원하는 중요한 군사와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¹³⁾ 더구나 明 初期에는 아직 遼東 屯田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明은 遼東으로의 군수공급을 위해 내지에서 최대 70여 만석의 군량을 수송해오던 시기였으며,¹⁴⁾ 군사

역시 내지에서 공급받아야 했기 때문에 명대 遼東이 山東에 의존하는 정도는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¹⁵⁾

遼東都司는 전국적인 都司體制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洪武 初期 중앙에는 최고군사기구인 大都督府를 설치하여 전국의 都指揮使司(‘都司’로 약칭함)를 관할하였다. 洪武 13年(1380) 大都督府는 다시 中·左·右·前·後 등의 五軍都督府로 분리되어 각 해당 지역의 都司를 관할하였으며, 都司 아래에 衛所를 설치하였다.¹⁶⁾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都司와 衛所

14) 『明太祖實錄』 洪武 18年 5月 己丑.

15) 『全遼志』 卷5, 劉九容 「海運議」, 『籌遼石畫』 卷6, 萬曆 46年 「宮應震題奏」, 『明史』 卷41, 地理志 2, 『全遼志』 卷1, 沿革 등. 明代 사료에는 遼東의 발전에 山東의 역할이 매우 필요했음을 알려주는 기록들이 많다. 예를 들면 『全遼志』는 ‘山東과 遼東은 같은 썩이다’라고 하였고, 『籌遼石畫』도 ‘국초에 遼東을 두었는데 山東에 속해 있다’ 하였는데, 모두 山東과 遼東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기구의 관계에 대해서도 『讀史方輿紀要』는 모두 遼東都指揮使司를 山東承宣布政使司에 속해 있는 것으로, 『全遼志』도 遼東都司는 25衛와 2州를 관할하며 山東布政使司에 예속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遼東이 山東이나 山東行省과 많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6) 都司는 각 성에 설립한 최고군사기구의 성격을 가지며, 都司 이외에 민사를 관리하는 布政司, 형사를 관리하는 按察使司가 있는 데 이들을 ‘三司’라고 칭하였다. 衛와 所는 都司에 예속된 하급의 군사기구라고 할 수 있다. 明朝는 大都督府·都司·衛·所 체제를 중심으로元起부터 사용하던 樞密·平章·元帥·總管·萬戶 등 군직계통의 관호를 혁파하였다. 都司에는 都指揮使(正2品) 1명, 都指揮同知(從2品) 2명, 都指揮僉事(正3品) 2명 등의 관직을 설치하고 衛所, 군사훈련, 둔전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都司 아래에는 衛指揮使司(略稱 ‘衛司’)와 千戶所와 百戶所를 두었으며 衛司에는 指揮使(正3品) 1명, 指揮同知(從2品) 2명, 指揮僉事(正4品) 4명 등을 두고 업무를 분담하였다. 明代 衛所軍은 주로 징발된 자, 귀부한 자, 充軍 등으로 구성되었다. 징발된 자는 농민기의군이나 反元의 입장을 가지고 있던 군사 등이, 歸附軍에는 주로 투항한 元軍이, 그리고 充軍은 죄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垛集軍이 있는 데, 이는 전국 각지에서 평민을 징발하여 군인으로 삼는 제도로 세습적으로 군직에 편입되었다. 明代는 民籍과 軍籍이 구분되었으며 軍籍은 軍戶라고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1衛는 5,600명으로 구성하여 指揮使 등이 관할하였다. 각 衛는 5개의 千戶所로 구성되었으며 1千戶所는 1,120명으로 구성하고 각각 千戶 등을 임명하였다. 각 千戶所는 10개의 百戶所로 구성되었는데, 1개 百戶所는 112명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각 百戶所는 2개의 總旗로 구성하고 總旗의 관직을 두었으며, 각 總旗는 5개의 小旗로 구성하였다. 遼東의 衛所軍은 둔전이 시행된 이후 대부분 屯田에 종사하였으므로 ‘屯軍’이라고도 칭하였다.

高麗는 1370년 李成桂를 통해 1월과 8월에 東寧府를 정벌하여 遼陽에서 가까운 螺匠塔까지 이르는 등 高麗와 北元의 遼東에 대한 위협은 明의 요동진출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요동정세 속에서 明 太祖는 1370년 遼東都司의 전신이 되는 遼東衛得利羸城을 설치하고 투항해 온 遼東地圖 등을 가지고 투항해 온 北元의 劉益을 指揮同知로 삼고, 다시 7월에 定遼都衛指揮使司를 두고 馬雲, 葉旺 등을 明 관리를 都指揮使로 삼는 등 본격적인 요동진출을 시도하였다.

12) 『明太祖實錄』 洪武 28年 4월 辛未.

13) 『明英宗實錄』 正統 元年 正月 壬午.

<표 1> 明代 五軍都督府와 소속 衛所

		都司 및 在京衛所	관할衛所
五軍都督府	左軍都督府	在京衛所	8衛
		浙江都司	16衛 4所
		遼東都司	20衛
		山東都司	11衛 4所
	右軍都督府	在京衛所	5衛
		雲南都司	15衛 1所
		貴州都司	18衛 1所
		四川都司	17衛 3所
		陝西都司	30衛 2所
	中軍都督府	在京衛所	5衛 1所
		中都留守司	8衛 1所
		河南都司	20衛 1所
		在外直隸揚州衛等衛所	18衛 1所
	前軍都督府	在京衛所	5衛
		湖廣都司	33衛 14所
		福建都司	11衛
		江西都司	5衛 9所
		廣東都司	11衛 13所
		在外直隸九江衛	
	後軍都督府	福建行都司	6衛 1所
		在京衛所	6衛
北平都司		15衛 1所	
北平行都司		8衛	
山西都司		7衛 5所	
山西行都司		5衛	
北平三護衛		3衛	
山西三護衛	3衛		

制度 등을 시행하면서 군량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시급한 일이었으므로 그들 대부분은 屯田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洪武 26년 '軍士 屯田則例'를 만들어 외지의 둔군은 '三分守城 七分屯開耕種'을, 내지의 둔군은 '二分守城 八分屯開耕種'의 원칙을 세우면서 屯田經營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군량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¹⁷⁾

전국의 군사, 곧 軍戶는 지방행정장관의 제약을 받지 않고 五軍都督府의 관할을 받았으며 기본적으로 세습되었다. 그리고 군대의 파견이나 군관의 임명은 兵部의 소관이었으며, 국가가 전쟁 등 위급한 상황에 돌입했을 때 兵部로부터 황제의 칙서를 받고, 都督府의 관리를 임명·파견하였다. 이처럼 明朝는 軍權을 都督府와 兵部로 분산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軍權의 집중과 남용 그리고 중앙을 위협하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다. 遼東都司는 體系的인 指揮系統에 따라 먼저 都司 아래 都指揮使·指揮僉事·指揮同知 등의 관리를 두고 전체적인 관련 업무를 책임지도록 하였다. 都司 아래 經歷司를 두고 관리 經歷으로 하여금 문서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斷事司(斷事, 副斷事를 두고 사법처리를 담당)·都事司(都事를 두고 일반 행정업무를 처리)·都司儒學(教授와 訓導를 두고 학교와 교육을 담당) 등을 설치하여 행정 사법 교육 등을 분담하여 처리하였다.¹⁸⁾

17) 正統年間 이후 衛所兵의 이탈로 衛所의 전투능력이 나날이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 明朝는 募兵制度를 시작하였다. 募兵制는 일반 백성 중에 군사를 모집하고 모병된 자들은 衛所의 군과는 달리 軍籍이 아니라 民籍에 편입시키는 제도였다. 이들에게 필요한 군량과 군수품은 전액 국가에서 지급하였으며 조정은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그 세금을 백성에게 전가하였다. 그러나 모병이 증가할수록 농민의 부담은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募兵制度의 弊端은 明末에 이르자 농민반란을 야기하여 명이 멸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8) 1402년~1424년 동안 遼東都司의 都指揮使, 指揮同知, 指揮僉事 등은 약 54명에 이르는 데 이들의 주요 임무는 行政的인 問題의 해결이 아니라 城堡와 관련된 군사업무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군사업무와 관련하여 遼東都司가 아닌 鎮守總兵의 명을 받고 있다. 이는 곧 행정관리계통과 군사위계통이 분리되지 않은 洪武時期에 비하면 永樂時期은 이미 전문적인 군사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都指揮使 이외에 鎮守總兵制度를 두었는데, 이는 특정한 군사임무를 위하여 황제의 命에 의해 總兵을 邊방에 倂建하는 제도이다. 그들의 중요한 업무를 정리해 보면 군사방어, 軍法의 執行, 人物의 推薦, 遼東馬市의 管理, 驛站의 運營과 管理, 屯田의 整理, 도망한 屯軍과 屯民의 處理, 邊方民族問題의 處理, 軍隊의 再調整, 使臣護送 그리고 宦官의 司法處理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遼東에 倂建된 總兵의 권한이 都指揮使와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당시 점차 위급해지는 遼東 情勢 속에서 황제가 부여한 군사임무를 직접 신속하게 수행하면서 都指揮使의 권력을 적절히 통제하려는 중앙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역시 군권의 집중을 막으려는 중앙의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巡撫를 倂建하는 監察制度 역시 遼東都司의 指揮體系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正統·景泰年間은 遼東巡撫制度가 형성되는 시기로, 遼東의 軍事指揮權은 洪武時期에는 都指揮使가, 永樂 시기에는 總兵이, 그리고 宣德 10年(1435)에는 巡撫·提督·御使 등이 그 역할을 분담하면서 업무가 크게 行政·軍事·監察의 세부분으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中·後期로 갈수록 總兵을 견제하는 監察權의 힘이 더욱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²⁰⁾ 이러한 상황은 明代 遼東이 기본적으로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하는 行政管理體系와 總兵을²¹⁾ 중심으로 하는 軍事指揮體系, 그리고 巡撫·提督·御使 등을 중심

19) 『明宣宗實錄』 洪熙 元年 閏7月 壬戌; 『明宣宗實錄』 宣德 10年 8月 己酉. 중앙에서 倂建된 總兵官은 전시에만 동원되는 非常設 관직이었으나 明 初期부터 전쟁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군무를 총괄하는 고정된 관직으로 변화했으며 '鎮守'라고도 칭하였다. 總兵官은 永樂時期 지방과 邊방을 방어하는 임무가 강조되면서 무신을 總兵官으로 倂建하여 지방과 邊방을 방어하도록 하였다. 總兵官(鎮守)은 처음에는 都指揮使司(都司)의 지방관과 그 위치가 비슷하였으나 점차 그 지위와 권력이 확대되면서 도사의 총 책임자인 都指揮使가 오히려 總兵官에게 예속되어갔다. 總兵官이 그 지방을 지키는 최고의 군사장관이 되면서 전쟁 시에 조정에서 또 다른 관리를 내려 보냈는데, 그가 곧 巡撫였다. 그러나 巡撫 또한 遼東의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점차 고정된 관직으로 변화하였으며 장기간 지방에 체류하면서 지방의 상황을 파악하여 上奏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 『明英宗實錄』 正統 7年 11月 乙丑; 『明史』 卷177, 『王翱傳』.

21) 總兵體制的 구조를 보면 總兵 아래 副總兵·左參將·右參將·備御都指揮·守備都指揮·

으로 하는 監察體系로 구성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하겠다.²²⁾

3. 遼東都司 管轄範圍의 擴大 試圖와 限界

明은 이제 초기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방어선과 25위 체제 등을 형성하고 한 후 그 외곽지역, 곧 몽골과 여진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전략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외 진출의 시도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 明이 몽골과 여진 지역에 많은 衛所를 설치하였지만 결국 모두 형식적인 설치에 머물거나 유지가 힘들어 방어선을 축소시키며 遼東都司로 흡수시켰기 때문이다. 우선 명은 내몽골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大寧都司를 방치함으로써 내몽골의 넓은 지역이 몽골 兀良哈 3衛의 영향 하에 들어갔다. 大寧都司의 설치는 遼東과 몽골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大寧을 내지로 만들고자 하는 明의 전략이었으나²³⁾ 결국 군사력의 약화와 물자공급의 곤란 등으로 大寧 지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明이 女眞과 朝鮮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하려했던 東寧衛, 三萬衛, 鐵嶺衛 등도 모두 遼東都司로 흡수시킬 수밖에 없었다. 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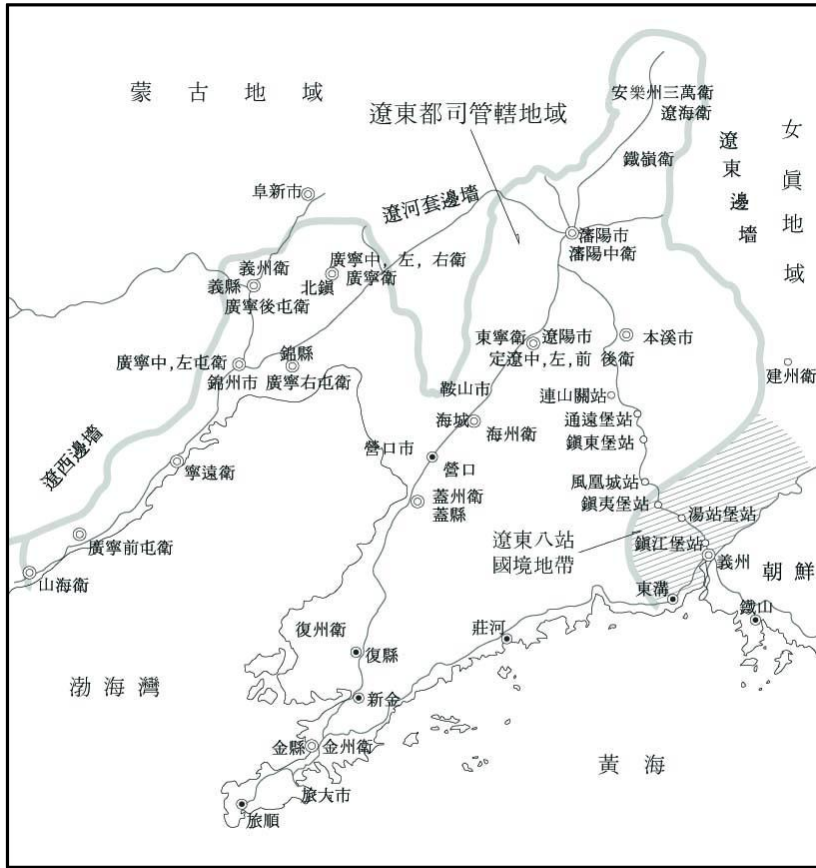
守備把總 등이 있고 이후에 遊擊 등의 직위가 새로 생기기도 하였다.

22) 『明太祖實錄』 洪武 15年 2月 壬戌, 洪武 18年 9月 甲申; 『明太祖實錄』 洪武 11年 6月 辛酉; 洪武 14年 7月 乙丑; 洪武 17年 6月 辛酉. 遼東都司는 이러한 지휘계통을 이용하여 군사적인 방어 이외에 南遷한 몽골족과 女眞族 그리고 기타 流移民들에 대해 招撫·懷柔·優待·賞賜·安置, 衛所로의 編入, 官職의 世襲과 俸祿의 支給을 통한 人口確保 등 민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무들도 처리하였다.

23) 명은 大寧 지역(내몽골 자치구 寧城)으로 군사력을 확대하여, 大寧·寬河·會州·富峪 등의 4성을 구축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洪武 20년(1387)을 전후하여 大寧에 前·後·左·右·中의 5衛가 설치되어 大寧都指揮使司(약칭 '大寧都司')의 관할이 되었다. 그러나 곧 이 지역을 포기함으로써 大寧 지역은 몽골의 영향 하에 들어갔다.

東都司를 구성하는 25衛 중 상당수의 衛는 이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東寧衛, 三萬衛, 鐵嶺衛 등의 3衛는 대부분 여진, 조선인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도 安樂州, 自在州 등도 遼東都司 북부 開原 지방에 설치되어 遼東都司가 필요로 하던 대외 교섭과 통역 등 중요한 임무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도 1> 遼東都司 관할 25衛·驛路 및 遼東防禦線



자료: 『中國歷史地圖集』 第7冊 參照.

명이 女眞 지역에 설치하려다가 遼東都司로 흡수한 3개의 衛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東寧衛는²⁴⁾ 洪武 13년(1380) 東寧·南京·海洋·草河·女眞 등 5개의 千戶所로서 여진지역에 설립되었다.²⁵⁾ 東寧은 여러 차례 이전을 거쳐 豆滿江 상류에 설치된 元代 東寧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元代 역시 당시 豆滿江 유역에 살던 高麗人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南京은 지금의 吉林省 延吉 부근으로 元代 開原路를 중심으로 散居하던 女眞人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海洋은 咸鏡北道 吉州로 高麗와 女眞人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처럼 여진과 고려지역을 포괄하던 원대 東寧府는 洪武 19년(1386) 그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어 東寧을 衛로 승격시키고 그 주위에 左·右·中·前·後의 5개 所를 설치하였다.²⁶⁾ 그리고 그 治所를 遼東都司가 위치한 遼陽의 북쪽으로 이전시켰다. 그리고 5개 千戶所 중 中千戶所는 漢軍으로, 나머지 4개의 千戶所는 朝鮮人和 女眞人을 통해 운영하였다.²⁷⁾ 명은 결국 이들을 초기의 여진지역에서 遼東都司의 治所인 遼陽城 북쪽으로 이전시켜 遼陽城을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여진지역을 포함하던 원대 東寧府의 상당부분을 포기하였던 것이다.²⁸⁾

24) 河內良弘, 『明代遼陽의 東寧衛について』(『東洋史研究』 44-4, 1986)과 최근의 연구성과로 徐仁範, 『明代의 遼東都司와 東寧衛』(『明清史研究』 第23輯, 2005. 4); 程尼娜, 『明代對 遼東都司東寧衛朝鮮居民的統轄探析』, 『登州港與中韓交流國際學術討論會論文集』, 山東大學出版社, 2005 등을 들 수 있다.

25) 『遼東志』 卷1 地理.

26) 『遼東志』 卷2 建置.

27) 『明太祖實錄』 洪武 19年 7月 戊午. 遼東都司로 편입된 東寧衛의 전체 호수는 15,634戶口인데, 朝鮮인들이 東寧衛의 상당부분을 구성하였다. 靖難의 變과 같은 戰亂期에는 東寧衛에 거주하던 상당수의 朝鮮인들이 鴨綠江을 넘어 朝鮮으로 유입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東寧衛의 인구구성에서 조선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東寧衛를 비롯한 상당수의 遼東 사람들은 正統年間 이후 몽골 등의 遼東침입으로 인해 朝鮮으로 넘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明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던 遼東八站에도 상당히 많은 東寧衛의 朝鮮人이나 遊民들이 숨어들게 되었다. 당시 遼東八站은 遼東都司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使行의 要路로, 遼陽에 이르기까지 5~6일의 노정이 소요되는데 대부분 朝鮮人의 민가에서 숙박하거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遼東八站 역시 많은 朝鮮人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鐵嶺衛는 처음 輯安에 설치하여 朝鮮과 女眞을 견제하고자 하였으나 高麗의 거센 반대에 직면하여 遼東攻伐을 야기하는 등의 사태로 결국 설치되지 못하고, 洪武 21년(1388) 奉集堡(지금의 瀋陽 동남쪽 40리 지점)에 이전되어 遼東都司를 방어하였다. 다시 洪武 26년에는 奉集堡에서 瀋陽과 開原의 경계인 古 罌州, 곧 지금의 鐵嶺市로 이전하여²⁹⁾ 요동 북쪽의 방어력을 강화하였다.³⁰⁾

당시 明은 遼東進出을 확대하기 위해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25衛 體制를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鴨綠江 유역에 鐵嶺衛를 설치하겠다는 明의 결정은 鴨綠江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군사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북진정책을 추진하던 高麗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³¹⁾ 鐵嶺衛 設置에 대한 遼東征伐論의 대두는³²⁾ 鐵嶺 지역이 明의 領土로 귀속될 수 있다는 對明危機意識 이외에도 明 初期 明과 高麗 사이의 군사적 갈등, 여진관할권의 문제, 明의 貢路閉鎖와 무리한 貢馬 要求, 禡王 시기의 反明의 態度 등 明과 高麗 사이에 발생한 갈등들이 응축되어 표출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明의 鐵嶺衛는 鴨綠江의 皇城(輯安)에 설치하려다가 瀋陽 동남쪽 40리 奉集堡에 설치되었으며, 최종적으로 遼東都司 북부 방어선에 해당하는 鐵嶺(지금의 遼寧省 鐵嶺市)에 설치됨으로써 압록강 유역에 그들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던

28) 『遼東志』卷6『人物志』.

29) 『明太祖實錄』洪武 21年 3月: 洪武 26年 4月 壬午.

30) 『明太祖實錄』洪武 20年 12月 壬申. 당시 遼東都司는 納哈出의 세력을 흡수하기는 하였지만, 주변의 여러 세력을 모두 흡수할 수는 없었다. 遼陽行省 지역의 高麗어나 女眞族은 상당수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遼東都司 관할지역 밖으로 이주하는 등 遼東都司의 인구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高麗에서는 遼東征伐論이 제기되고 高麗가 女眞을 적극적으로 초무하는 등 明에 불리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遼東都司가 관할지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鐵嶺衛를 통해 관할지역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

31) 『高麗史』卷136, 禡王 13年 5月.

32) 刁書仁, 卜照品, 『論元末明初中國與高麗, 朝鮮的邊界之爭』, 『北華大學學報』, 2001年 第2卷 第1期, p. 54.

것이다.³³⁾

三萬衛 역시 豆滿江 유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訓春江(琿春江) 유역의 斡朵里 유역에 처음 설치하였으나,³⁴⁾ 곧 식량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遼東都司 북부에 해당하는 開原으로 옮겼다.³⁵⁾ 開原은 지금의 遼寧省 開原老城鎮으로, 遼代의 咸州, 金·元代의 咸平府에 해당한다. 洪武 21년(1388) 開元은 開原으로 고치고, 동쪽으로는 女眞 각부를 서북쪽으로는 몽골 兀良哈을 통제하는 遼東都司가 관할하는 重鎮의 역할을 하였다. 開原은 몽골세력과 女眞세력을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기도 하지만 遼河를 끼고 있는 重鎮이기 때문에 遼河를 이용하여 군수물자가 공급되기도 하고 상업을 발전시키는 등 군사 및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위에서 설명한 이들 衛의 설치과정과 특징으로 볼 때 洪武年間の 遼東은 納哈出을 성공적으로 제압하고 遼東都司와 25衛 중심의 衛所體制를 1단계

33) 鐵嶺衛의 위치에 대해서는 輯安(黃城), 江界, 함경도 鐵嶺, 奉集 등 논쟁이 많았으나, 최근 박원호는 그의 논문 「鐵嶺衛의 位置에 대한 再考」(『東北亞歷史論叢』 13호, 2006.11)에서 衛所制의 특징과 군사 숫자, 둔전 경영의 특징상 함경도 남부와 강원도 북부에 해당하는 鐵嶺은 초기 계획된 鐵嶺衛가 설치될 수 없는 지역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明史』 『明實錄』 『遼東志』 『全遼志』 등의 사료를 분석하여 명군이 처음 鐵嶺衛를 설치하려고 했던 지역은 黃城이며, 江界에 까지 가서 초무활동을 벌이다가 奉集으로 철회하였음을 밝혔다. 더불어 鐵嶺衛의 문제는 三萬衛와 더불어 14세기 遼東과 동아시아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도 지적하였다.

34) 『明太祖實錄』洪武 21年 3月 辛丑.

35) 三萬衛의 문제 역시 鐵嶺衛와 마찬가지로 明 初期 遼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선 三萬衛의 초설지를 둘러싸고 크게 松花江과 豆滿江설로 나누어지는데, 그 위치가 어디인가에 따라 14세기 명의 요동전략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최근 박원호는 역시 「鐵嶺衛의 位置에 대한 再考」(『東北亞歷史論叢』 13호, 2006.11)에서 鐵嶺衛와 三萬衛의 설치가 明이 요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초설치의 위치를 豆滿江 유역의 女眞 斡朵里部로 추정하였다. 삼면위의 설치시기가 鐵嶺衛와 비슷함을 분석하고 그 위치를 두만강 유역으로 추정함으로써 明 初期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鴨綠江과 豆滿江으로 明이 管轄範圍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鐵嶺衛와 三萬衛의 상관관계는 14세기 요동정세와 명의 요동정책, 조선과의 여진 관할권 등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무리하며 몽골과 여진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시키려 하였으나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곧 遼東都司를 중심으로 동으로 連山關, 북으로 開原과 昌圖, 遼西로 廣寧을 중심으로 遼東都司 방어선을 유지 강화하는 데 주력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洪武年間 女眞 지역은 明의 영향력 아래 들어올 수 없었으며, 오히려 여진지역으로 밀려들어오는 몽골의 공격과 약탈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洪武年間 遼東都司로 방어선을 축소하여 군사력과 노동력에 필요한 인구를 흡수하고 방어선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대의 팽창기로 알려진 永樂年間에도 開原 성내에 安樂州·自在州(自在州는 正統 8년에 遼陽으로 옮김)를 설치하여 몽골과 女眞 등의 귀부자들을 적극적으로 안치한 것도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永樂帝는 여진 지역에 衛所를 설치하면서 朝鮮에 대해 豆滿江 주변의 11處 女眞을 귀속하겠다고 통보해 왔으나 이 역시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明은 使臣 王可仁을 통해 朝鮮에 칙서를 보내 參散·禿魯兀 등 11處의 溪關萬戶 寧馬哈 등을 招諭할 것을 통보하였으나,³⁶⁾ 朝鮮은 金瞻을 京師에 보내 11處 女眞 지역이 이미 朝鮮에 편입되어 호적에 올라있다고 보고함으로써³⁷⁾ 明은 이 지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³⁸⁾ 鐵嶺衛와 三萬衛의 이동, 奴兒干都司의 기능정지, 11處 女眞 지역의 포기 등은 모두 遼東都司 體系가 더 이상 외부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없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명이 이처럼 관할 범위를 여진지역으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결국 朝鮮과의 긴장국면을 조성하였으며 여진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明은 永樂年間 여진 지역으로 대대적인 진출을 시도하였는데, 특히 두만강 유역 斡朶里部的 猛哥帖木兒를 明으로 흡수하려는데 집중

36) 『朝鮮王朝實錄』太宗 4年 4月 甲戌.
37) 『朝鮮王朝實錄』太宗 4年 5月 己未.
38) 『朝鮮王朝實錄』太宗 4年 10月 己巳.

하였다. 朝鮮은 明에 앞서 豆滿江 유역의 女眞問題를 중요한 현안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斡朶里部를 이끌고 가던 猛哥帖木兒를 초기부터 朝鮮의 영향력 하에 두고 있었는데, 明의 진출 시도로 明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 明이 豆滿江을 확보할 경우 遼東都司에서 가까운 鴨綠江과 연결시켜 방어선으로 설정하게 되면 朝鮮과 女眞을 분리시키고 나아가 鴨綠江과 豆滿江 유역의 女眞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이점과 몽골을 배후에서 막아 줄 세력을 확보하는 등 많은 전략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太祖年間에 鐵嶺衛와 三萬衛를 각각 鴨綠江과 豆滿江 유역에 설치하려다가 좌절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두만강 여진 회유는 이전과는 달리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³⁹⁾ 그러나 조선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여진회유에 효과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猛哥帖木兒는 명나라 사신 千戶 高時羅 등에게 자신들을 吾都里衛라고만 하고 萬戶의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明으로 귀부하라는 황제의 칙서와 명령을 거절하고 明과의 단절을 통보하는 한편 조선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⁴⁰⁾ 그러나 明의 사신 王敎化的의 끊임없는 접촉과 회유로, 永樂 3년(1405) 5월 猛哥帖木兒는 마침내 기존의 明에 대한 강경한 태

39) 『朝鮮王朝實錄』太宗 3年 6月 辛未; 太宗 4年 3月 甲寅, 己未; 太宗 5年 2月 己丑; 太宗 5年 5月 庚戌. 1403년 明은 朝鮮에 칙유를 내려 猛哥帖木兒의 斡朶里, 兀良哈 등에 대한 관할권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明에 대해 朝鮮은 明의 입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지만 豆滿江 유역은 朝鮮의 중요한 변경이었기 때문에 10처 女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猛哥帖木兒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朝鮮은 다양한 물품 공세와 함께 猛哥帖木兒에게 上將軍의 관직을 내리고 동시에 기타 女眞人들에게도 護軍, 司直, 副司直 등으로 임명함으로써 그들을 朝鮮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明의 입장에 대해 朝鮮은 ①이미 猛哥帖木兒 등은 朝鮮의 호적에 편입되어 있으며, ②더구나 그들은 이전에 明 成祖가 차지하려다가 朝鮮의 영토로 인정하고 포기한 10處 女眞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여 明에게 이 지역의 女眞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40) 『朝鮮王朝實錄』太宗 5年 春正月 庚子; 太宗 5年 3月 丙午. 猛哥帖木兒의 거절에도 永樂 3년(1405) 정월과 3월에 成祖는 다시 千戶 高時羅와 王敎化的을 보내 猛哥帖木兒와 지속적으로 여진과 접촉하는 한편, 朝鮮에게도 칙서를 보내 협조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외교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도를 버리고 같은 해 9월 마침내 明의 京師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明은 한 걸음 나아가 朝鮮을 강하게 질책하며⁴¹⁾ 朝鮮과 猛哥帖木兒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女眞人은 成化 元年(1465) 稱波右가 전한 기록⁴²⁾과 申叔舟가 수집한 기록을 종합해 보면 婆猪江 유역을 중심으로 전체 建州 3衛의 33,200의 인구 중 대략 13,000여 명이 군역에 종사한다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명과 조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女眞이 明과 朝鮮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지만,⁴³⁾ 이러한 군사적 공격이 女眞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⁴⁾ 오히려 그들은 成化 13年(1477) 海西 各 衛의 수령들은 建州 3衛를 규합해서 遼東都司 동부의 중요 거점인 靉陽堡를 공격하는 등 요동을 점차 강도 높게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몇 차례의 대대적인 建州女眞에 대한 토벌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약탈을 저지할 수는 없었으며 이들의 점진적인 성장은 遼東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었다.

41) 『朝鮮王朝實錄』太宗 5年 9月 己酉. 질책의 내용은 지난날에 동북면 10處의 人民 2천여 명을 이미 모두 請한 대로 朝鮮에 양보하였는데 皇后의 親族인 猛哥帖木兒를 조선이 양보하라는 것이었다. 곧 明이 朝鮮의 土地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皇親 猛哥帖木兒를 회유할 뿐이라는 명분을 朝鮮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실상 猛哥帖木兒가 明에 회유된다는 것은 그 일대의 女眞 部族이 모두 明의 衛所體制에 편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豆滿江과 인접한 朝鮮의 邊境에 불안정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다.

42) 『朝鮮王朝實錄』世祖 11年 5月 丁未.

43) 『明憲宗實錄』成化 16年 2月 壬申. 成化 15年(1479) 9월 明朝는 太監 汪直을 都督軍務로, 撫寧侯 朱永을 征虜將軍으로 임명하는 등 군사적인 조치를 재편하여 건주 토벌을 계획하여 659명을 참수하고 486인을 포로로 잡는 등 큰 전승을 거두기도 하였다.

44) 『明憲宗實錄』成化 4年 3月 戊寅.

4. 邊牆體制로의 轉換과 防禦力의 弱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명은 초기부터 遼東都司와 25衛 방어체제를 통해 遼東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永樂年間(1403~1424)에는 黑龍江 지역에 奴兒干都司를 건립하여 해당지역의 女眞 초무를 계획할 정도로 明의 여진지역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明代 遼東政策의 핵심에 있었던 遼東都司는 방어체제와 지휘체계의 구축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크게 볼 수 없었다. 이러한 방어체제 약화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들, 곧 둔전 생산량의 감소,⁴⁵⁾ 衛所兵의 도망과 인구의 감소,⁴⁶⁾ 관리들의 토지 침탈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

45) 『明宣宗實錄』宣德 8年 8月 庚戌; 『明英宗實錄』正統 4年 2月 辛巳; 『明憲宗實錄』成化 13年 正月 丁未. 永樂 시기에 생산되던 최대 70여만 석의 屯田 생산량은 明 中期가 되면서 36만여 석으로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둔전의 감소를 회복하기 위해 宣德 8年(1433)에는 遼東都司 25衛에 소속된 屯軍을 빈부와 노동력의 구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屯田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등 明 後期까지 둔전개혁을 시도하였다. 이외에도 공한지 개간과 이에 대한 세금 면제, 富戶들의 둔전 점유 금지, 屯田의 정확한 측량과 균등한 분배 등 지속적인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명 후기로 갈수록 둔전의 연 생산량이 약 16만석으로 급감하였다. 더구나 자연재해가 겹칠 경우 생산량이 7~8만석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明 初期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생산량이라고 할 수 있다.

46) 『明熹宗實錄』天啓 2年 1月 乙丑, 2月 戊辰; 天啓 元年 5月 癸丑. 明初 遼東都司 관할지역에 거주하던 50여 만의 인구는 嘉靖 44年(1565)에 96,441戶에 381,496명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天啓年間(1621~1627) 이후에는 요동의 위기와 혼란으로 山海關과 山東 등으로 피난한 인구는 작게는 10여 만에서 많게는 수십만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10여 만 명이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朝鮮으로 도망한 사람도 상당수 있었는데, 毛文龍이 朝鮮으로 넘어올 때 군사 26,000여 명, 난민 9~10만 약 10여 만에 가까운 인구를 인솔하고 朝鮮으로 넘어왔다. 이 숫자만 합쳐도 山海關·山東·朝鮮 등으로 도망해 온 군사가 최소 25만 이상이다. 25만이 전쟁을 피해 遼東都司 지역을 빠져나왔다면 약 10~15만 정도의 인구만이 遼東都司 지역에 남아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었으나, 더 중요한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들도 遼東都司의 방어력을 약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이다. 요동 위기가 심화되었던 正統年間 몽골세력은 ‘土木堡의 變’을 통해 明의 英宗 을 포로로 잡고 변방 방어선을 돌파하여 북경과 변경을 위협할 정도로 큰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여진 역시 북변이 소란한 틈을 타 遼東의 동부지역을 약탈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명의 변방 군사력이 여러 면에서 이미 몽골을 능가할 수 없으며 遼東都司가 새로운 방어체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⁷⁾

특히 서몽골(오이라트) 세력은 遼東 북부에 자리 잡고 있던 兀良哈 3衛, 大同, 宣府, 北京, 遼東, 女眞 등 넓은 지역으로 진출하고자 하였으며 朝鮮 까지 위협하고 있었다.⁴⁸⁾ 서몽골 세력이 강할 때는 교역을 요구하는 入貢者가 1년에 2~3천 명에 이를 때도 있었다. 서몽골의 성장은 遼東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당시 遼東 防禦線 북쪽에는 몽골 兀良哈 3衛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서몽골의 공격을 받음으로서 많은 몽골족이 遼東 防禦線으로 밀려들어 遼東都司를 위협하였다. 兀良哈 3衛의 분포지역 중에 虹螺山(興城), 老虎林(鐵嶺), 車輪坡, 刀背山 등의 지명이 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遼東 방어선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역이다. 成化 元年(1465) 10월에는 遼東太監 李良이 兀良哈 3衛를 구성하고 있는 泰寧·朵顏 2衛의 1천여 명이 변방에 들어와 사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약탈이 우려된다고 보고하는 등 遼東의 북부 변경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遼東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明은 더욱 방어시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진행되었다.⁴⁹⁾

47) 楊艷秋, 「論明代洪熙宣德年間的蒙古政策」, 『中州學刊』, 1997年 第2期, p. 7.
 48) 『朝鮮王朝實錄』世宗 24年 8月 己亥.
 49) 成化年間 余子俊은 榆林 長城을 수축하였으며, 弘治年間에는 固原 長城이 강화되는 등 明의 몽골정책은 장성방어선을 강화하여 몽골 防禦體系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곧 明은 방어선을 강화하면서 몽골의 통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하였으며, 성보를 축성하고 연결하는 防禦體系는 遼東에도 영향을 주어 遼東邊牆을 수축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이러한 명의 장성중심의 防禦體系는 장성 밖의 정세를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몽고정세에 대한 정보과 접촉의 부족으로 적절한 대몽정책을 수립할

<표 2> 遼西邊牆 주둔군수와 특징

보명칭	주둔군	특징	보명칭	주둔군	특징	비고
鐵場堡	126	通賊道路	大興堡	351	通賊道路	
永安堡	151	通賊道路	大福堡	351	通賊道路	
三山營堡	176	通賊道路	大鎮堡	350	通賊道路	
平山營堡	175	通賊道路	大勝堡	350	通賊道路	
高臺營堡	176	通賊道路	大茂堡	351	通賊道路	
新興營堡	490	通賊道路	大定堡	351	通賊道路	
錦川營堡	175	通賊道路	大安堡	351	通賊道路	
黑庄窩堡	251	通賊道路	大康堡	351	通賊道路	
仙靈寺堡	435	通賊道路	大平堡	351	通賊道路	
小團山堡	176	通賊道路	大寧堡	351	通賊道路	
興水縣堡	195	通賊道路	大靜堡	301	通賊道路	
白塔峪堡	171	通賊道路	大清堡	351	通賊道路	
寨兒山堡	171	通賊道路	鎮夷堡	503	通賊道路	
灰山堡	148	通賊道路	鎮邊堡	501	通賊道路	
松山寺堡	196	通賊道路	鎮靜堡	503	通賊道路	
沙河兒堡	201	通賊要路	鎮安堡	497	通賊道路	
長嶺山堡	172	通賊道路				
椴木沖堡	126	通賊道路				

그리고 遼東都司의 동부, 곧 여진지역에서도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建州女眞의 성장이다. 建州女眞은 처음 松花江 유역에서 성장하였으나 朝鮮의 豆滿江 유역 등 여러 차례 이동을 거듭하면서 朝鮮과 遼東都司에서 가까운 婆猪江 유역으로 대거 이동하여 그 세력을 형성해 나갔다. 正統 元年(1436) 建州衛 都指揮 李滿住는 渾江(婆猪江)⁵⁰⁾ 유역에 거주하다

수 없었다. 遼東 지역 역시 遼東邊牆의 수축으로 동부의 여진세력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에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50) 渾江(婆猪江)의 위치는 吉林省 동남의 通化和 遼寧省 동부의 桓仁·寬甸에 해당하는 데,

가 다시 遼陽에서 가까운 草河 부근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李滿住가 草河 유역으로 이주하겠다고 한 원인은 忽刺溫의 침입,⁵¹⁾ 朝鮮의 女眞 招撫, 유사시 明의 지원과 보호 요청 등을 들 수 있으나, 李滿住의 계획은 遼東都司가 계속 몽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女眞을 遼東都司 방어선 근처 草河에 둔다는 것은 전략상 明에게 분리하였으므로 용인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처럼 계속되는 遼東의 危機 속에서 明은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할 수밖에 없었으며, 곧 遼東邊牆의 築造라는 대안 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遼東邊牆은⁵²⁾ 중국의 연구성과들이 遼東長城이라고도 언급하기도 하지만 大同이나 宣府 지역의 萬里長城처럼 벽돌을 이용한 견고한 축조물은 아니었다. 遼東邊牆은 주로 木柵의 형태를 유지하였고, 흙과 나무를 이용하여 축조되었으며 중요한 요충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그 견고성에서 萬里長城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견고성에서 약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방어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明의 遼東邊牆 수축 상황은 朝鮮 平安道敬差官 李淳叔에 의해 조사되어 보고되기도 하였다.

이 지역은 遼東都司와도 가깝지만 朝鮮의 군사 중진 閩延·江界와 아주 근접한 지역이다. 곧 朝鮮 변경의 서남로에 해당하며 鴨綠江에서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진 세력이 자리를 잡는다면 朝鮮의 변경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51) 『明宣宗實錄』 宣德 10年 2月 戊申.

52) 張德玉, 『滿族發源地歷史研究』, 遼寧民族出版社, 2001, p. 33. 遼東邊牆의 遼西와 遼河套邊牆을 '西牆', 동쪽의 邊牆을 '東牆'이라고 하기도 한다. 西牆은 주로 兀良哈 침입을 막기 위하여, 東牆은 女眞을 막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邊牆의 성격을 놓고 단순한 邊牆이라는 說과 國界說이라는 주장이 있다. 단순한 邊牆으로 보는 입장은 楊暘 등 중국학자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으로 國界가 아니라 內地의 北部邊疆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明代 邊牆의 기능은 명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몽고와 여진지역을 방어진 성격이 강하며, 기록에서도 방어선의 위치를 적과 대치한 지점, 곧 '賊路' '臨境'에 위치한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國界說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明이 설치한 女眞 衛所는 永樂年間に 상당수가 설치되었으나 中·後期로 갈수록 建州女眞 같은 독립적인 세력으로 변해가며 遼東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미위소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邊牆의 성격과 女眞衛所 등의 성장과정과 위협 등은 遼東邊牆이 國境線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臣이 군사 3백 명을 거느리고서 강을 건너 也郎洞에 이르러 長牆의 경계를 보니, 川溪에는 나무와 돌을 서로 섞어서 溝牆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척이고, 너비가 4척이며, 평지에는 나무를 엇갈아 놓았는데 너비가 1백여 척 이었습니다. 남쪽으로 10여 리 떨어진 높은 봉우리에는 나무를 엇갈아 쌓아서 높이가 8척이고 사면의 너비가 각각 13척이 되게 煙臺를 쌓고 연대 위에 높이 5척의 板屋을 만들었으며, 연대와의 거리는 혹은 20여리에, 혹은 15여 리인데, 長牆으로부터 동쪽으로 昌城府의 雲豆伊 煙臺와의 거리가 1백여 리이고 남쪽으로 仇寧口子까지의 거리가 60여 리입니다.⁵³⁾

이러한 보고를 보면 邊牆의 주요한 재료는 벽돌이 아닌 목재와 석재를 섞어서 축조된 것이며, 흙벽, 목책, 석축이 주를 이루며 자연적인 지세를 이용하여 그 견고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⁵⁴⁾ 요동변장은 山海關-開元-鴨綠江 부근에 이르는 대 공사로, 邊牆의 전체 길이는 약 880km (2,300여 리)로 M자형을 그리며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遼東邊牆의 수축은 앞서 언급한 바 기본적으로 동·서몽골과 兀良哈 3衛 그리고 동부의 女眞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⁵⁵⁾

遼東邊牆은 대체로 변경에 설치된 성보, 봉수대 등을 연결시켰는데, 주로 3지역(西段邊牆,⁵⁶⁾ 遼河套邊牆,⁵⁷⁾ 東段邊牆⁵⁸⁾)으로 구분할 수 있다(〈지도

53) 『朝鮮王朝實錄』 睿宗 1年 8月 甲子.

54) 당시의 전투에는 불을 이용하여 적진을 불태우는 화공전이 자주 이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遼東邊牆이 木柵으로 구축되어 화공전에 매우 약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遼東邊牆은 萬里長城과는 달리 벽돌로 연결된 견고한 성은 아니다. 그러나 『全遼志』 등의 사료를 분석해 보면 주로 험준한 자연 지세를 이용하였고 女眞 등이 침입한 곳은 주로 길이 통하는 지역이었다. 明은 이러한 적의 침입 경로를 예측하였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표로 제시한 것처럼 城堡가 적의 침입 예상로를 중심으로 설치되었고 이 성보들은 木柵이 아니라 견고한 벽돌과 돌 등으로 축조되어 화공 등의 공격을 예방하였다. 주로 騎馬兵 위주로 구성된 女眞이 침입해 오는 경로는 험준한 산악이 아니라 보가 설치된 입구였던 것이다. 따라서 明代 遼東邊牆은 험준한 자연지세, 침입하기 힘든 곳은 木柵 등으로, 그리고 침입하기 쉬운 교통로는 벽돌과 돌 등을 이용하여 城堡를 수축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邊牆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55) 楊暘, 『明代東北史綱』 學生書局, 1993, p. 224.

1) 참조). 遼河套 邊牆은 黑山에서 開原까지 34城堡와 414개의 墩臺로 구성되어 있으며, 邊牆의 中間부분에 해당하며 遼河를 따라 형성되었다. 축조 시기도 가장 빠른데, 그 이유는 遼河套 지역은 비교적 지세가 평탄하고 험산이 없으며, 대부분의 하천 역시 수심이 낮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 쉽게 동결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러한 지형적인 분리함 때문에 방어가 시급하였고, 명초 大寧都司가 방치된 후 몽골 兀良哈 3衛 세력이 이 지역으로 내려와 거주하며 遼東을 크게 위협했다. 正統 元年(1436) 薊州, 永平 등의 總兵이 올린 상주문을 보면 이미 긴 城을 설치하여 3리마다 墩臺와 포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며 2백여 좌의 墩臺가 완성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데, 이것으로 보아 1436년은 遼河套 지역에서 邊牆 형태의 防禦體系가 이미 조금씩 형성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⁵⁹⁾

- 56) 李治亭 主編, 『東北通史』, 中州古籍出版社, 2003, pp. 388-389. 西段邊牆은 遼西邊牆이라고도 하는데, 邊牆을 따라 형성된 關隘 堡는 鐵場堡(관할 墩臺 8좌, 이하 숫자만 표기)-永安堡(9)-背陰章堡(8)-新興營堡(11)-三山營堡(15)-平山營堡(12)-瑞昌堡(12)-高臺堡(8)-三道溝堡(9)-新興營堡(11)-錦川營堡(13)-黑庄窩堡(13)-仙靈寺堡(12)-小團山堡(16)-興水縣堡(20)-白塔峪堡(19)-寒兒山堡(13)-灰山堡(9)-松山寺堡(14)-長嶺山堡(10)-沙河兒堡(11)-椴木冲堡(18)-大興堡(19)-大福堡(18)-大鎮堡(18)-大勝堡(22)-大茂堡(17)-大定堡(17)-大康堡(22)-大平堡(18)-大寧堡(11)-大安堡(6)-大靖堡(13)-大清堡(13)-鎮夷堡(13)-鎮邊堡(14)-鎮靖堡(17)-鎮安堡(13) 등이다.
- 57) 遼河套 邊牆의 주요 연결 堡는 鎮遠堡(관할 墩臺 10좌, 이하 숫자만 표기함)-鎮寧堡(13)-西興堡(16)-鎮武堡(15)-西平堡(13)-西寧堡(9)-東昌堡(12)-東勝堡(19)-長靜堡(9)-長寧堡(13)-長定堡(12)-長安堡(15)-長勝堡(13)-長營堡(16)-長勇堡(13)-武靜營堡(0)-奉集堡(0)-靖遠堡(14)-平虜堡(5)-上榆林堡(12)-十方寺堡(14)-丁字泊堡(13)-宋家泊堡(13)-曾遲堡(7)-鎮西堡(11)-定遠堡(12)-殷家窩堡(12)-慶雲堡(10)-古城堡(7)-永寧堡(4)-鎮夷堡(12)-清陽堡(13)-鎮北堡(18)-威遠堡(20) 등이다.
- 58) 東段邊牆을 구성하고 있는 城堡의 구성과 墩臺수는 다음과 같다. 靖安堡(관할 墩臺 21좌, 이하 숫자만 표기)-松山堡(10)-柴河堡(17)-撫安堡(10)-花抱冲堡(분명치 않음)-三岔兒堡(10)-會安堡(10)-撫順所城堡(12)-東州堡(17)-馬根單堡(7)-散羊峪堡(4)-清河堡(16)-堵牆堡(5)-鹹場堡(10)-孤山堡(7)-酒馬吉堡(9)-璦陽堡(14)-險山堡(17)-大甸子堡(불명확함)-新安堡(17)-寧東堡(불명확함)-江沿臺堡(12) 등이다.
- 59) 『明英宗實錄』 正統 元年 4月 甲寅, “先已奏准于所割地方長城內, 每三里設墩架炮, 遇賊薄城舉火發炮, 庶使不能潛越, 今墩臺二百餘座已完, 清給合用信炮”.

<표 3> 遼河套邊牆 주둔군수와 위치의 특징

보명칭	주둔군수	위치의 특징	보명칭	주둔군수	위치의 특징
鎮遠堡	502	通賊道路	奉集堡	139	腹裏無邊
鎮寧堡	503	通賊道路	靖遠堡	364	臨境
西興堡	340	臨境	平虜堡	271	臨境
西平堡	552	通賊道路	上榆林堡	388	通賊道路
西寧堡	407	通賊道路	十方寺堡	335	通賊道路
東昌堡	463	無通賊道路	丁字泊堡	200	通賊道路
東勝堡	452	臨境	三岔兒堡	381	通賊道路
長靜堡	301	臨境	宋家泊堡	261	通賊道路
長寧堡	419	通賊道路	曾遲堡	201	通賊道路
長定堡	515		定遠堡	251	通賊道路
長安堡	491	臨境	鎮夷堡	251	通賊道路
長勝堡	461	臨境	清陽堡	325	通賊道路
長勇堡	583	臨境	鎮北堡	351	通賊道路
長營堡	500	通賊道路	威遠堡	351	通賊道路

東段邊牆은 開原에서 撫順 방면으로 진행되어 鴨綠江 부근까지 이르렀다. 이 지역은 산과 구릉이 많아 明 初期부터 지형의 험준함을 이용하여 여러 關을 설치하였는데, 片嶺關·刺榆關·連山關·撫順關·鎮北關 등은 대표적인 것들이다. 東段邊牆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여진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데, 正統年間 建州女眞이 南遷하여 撫順 동쪽의 渾河와 그 지류인 蘇子河 유역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李滿住·董山 등이 遼東 지역을 공격하였고, 15세기 중엽에 해당하는 成化 2年(1466) 1年間 建州 3衛가 兀良哈과 연합하여 97차례의 遼東을 공격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다.⁶⁰⁾ 이로써 撫順

60) 『明憲宗實錄』 成化 14年 2月 庚申; 『朝鮮王朝實錄』 睿宗 元年 9月 壬申. 15세기 중엽 이러한 여진의 성장으로 明과 朝鮮 역시 대대적인 여진에 대해 토벌정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成化 3年(1467) 女眞의 董山과 李古納哈 등을 체포하기도 하였으며, 女眞을 토벌

남쪽의 東州堡·馬根單堡·清河堡, 薊陽堡 등을 지속적으로 수축 정비되었으며,⁶¹⁾ 嘉靖年間(1522~1566)에는 3만에서 4만의 인력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東段邊牆의 구조 역시 기본적으로 鎮城·路城·衛城·所城·驛城·鋪城·路臺 등과 城池·邊堡·邊臺·邊牆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방어망을 의미한다.

변장은 주로 방어벽의 역할을, 크고 작은 성보들은 지휘 기지의 역할을 하였는데, 堡는 주로 작은 규모의 성으로 적로와 통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적의 동태와 움직임을 은밀히 관찰하며 후방에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墩臺는 일종의 망루로서 높은 곳에서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邊牆 지역의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체계는 후방의 역로망과 연결되어 군수품을 공급받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으며 유기적인 방어체제를 구축하였다.

衛城과 所城은 약 5백~1천여 명의 군대가, 보에는 100~500명 정도가, 邊臺 등에는 평균 5명이 주둔하며 2~3리의 지역을 감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衛城과 所城은 주위의 堡城 3~4개를 책임지는데, 약 30여 리 지역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遼東邊牆 防禦體系 역시 점차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遼東邊牆 중 초기부터 방어가 가장 취약한 곳은 遼河套 지역이었다. 遼河套 지역은 山海關과 開原 사이의 오목하게 들어간 彎曲(河套) 지역 지역으로써

<표 4> 東段邊牆의 堡, 駐屯軍數, 위치의 특징

堡명칭	주둔군수	위치의 특징	堡명칭	주둔군수	위치의 특징
靖安堡	351	通賊道路	馬根單堡	484	通賊道路
松山堡	251	通賊道路	鹹場堡	461	臨境
柴河堡	251	通賊道路	清河堡	484	通賊道路
撫安堡	201	通賊道路	酒馬吉堡	461	通賊道路
會安堡	422	臨境	薊陽堡	999	臨境
東州堡	526	通賊道路	新安堡	452	臨境

明初 大寧都司 관할지역이었는데, 방어선의 축소로 大寧이 방치되면서 兀良哈 3衛가 서서히 남하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변화였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明 中期는 둔전생산력이 감소하고 衛所制度가 매우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2천 여리의 요동변장 방어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인적·물적 조건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긴 방어선을 축소시키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M자형 방어선 중 遼河套 지역을 짧은 직선으로 변경하여 冂字형의 방어선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곧 오목한 방어선 부분을 일직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요하를 방어선 안쪽으로 편입시켜 전략적으로 이용가치를 높이고, 방어선의 길이가 축소된 만큼 물적 인적 자원을 절약하자는 전략적 계산이었다. 그러나 결국 변경 기강의 해이, 人的·物的資源의 부족, 이미 마주하고 있는 몽골과의 갈등,⁶²⁾ 이미 심각해진 변경의 위기, 衛所와 둔전의 폐해로 인한 인구의 부족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遼東邊牆 방어선의 변경은 실행될 수 없었다. 또한 군사력과 직결되는 戰馬 공급도 원활하지 못했다. 明初 遼東에는 몽골, 조선, 여진 등과의 교역을 통해 확보한 수많은 戰馬가 사육되고 있었다. 그러나 말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操軍들의 과중과 부역과 책임, 변방의 기강 해이로 인한 관리들의 戰馬 밀

하여 56인을 참수하고 200여 명을 포로로 잡는 등 군사적 대응을 하기도 하였다. 朝鮮 역시 1469년 李滿住의 본거지를 공략하여 童山 李滿住 및 그 아들 古紳哈 등 273명을 죽이고 24명을 생포하였으며 은신처 200여 곳 이상을 불태우는 전과를 올렸다. 成化 14년(1478) 2월에도 遼東總兵官 都督同知 歐信과 巡撫遼東左部都御使 陳鉞은 建州 3衛를 공격하여 적의 본거지 53寨와 가옥 200여 채 그리고 2백여 명을 참수하는 등 강경한 군사적 방법으로 女眞을 습격하였다.

61) 叢佩遠, 『明代遼東邊牆』, 『東北地方史研究』, 遼寧省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1985年 第1期, 『遼東志』(遼海叢書本) 卷7, 『藝文』 韓斌遼東防守規劃條. 東州堡는 撫順 남쪽 40리 지점에, 馬根單堡는 東州의 남쪽 30리 지점에, 清河堡는 馬根單堡 남쪽 90리 지점에, 鹹場堡는 清河堡 남쪽 70리 지점에, 薊陽堡는 鹹場堡 남쪽 120리 지점에 각각 위치하였다.

62) 『明憲宗實錄』成化 23年 7月 丁未.

때 등 馬政 經營을 소홀히 함으로써 변방의 戰馬需給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명 전기 50여 년 동안 조선으로부터 약 5만여 필의 말을 교역하는 등 명의 戰馬 확보는 필사적이었다. 그러나 明初 10여 만 필을 초과하던 遼東의 戰馬가 萬曆 28년(1600)에는 2만여 필에 불과할 정도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遼東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곧 요동도사 방어체계의 전략적 변화였던 遼東邊牆은 明初 遼東都司와 25衛 체제의 방어선을 변장, 성보, 봉수대, 망루 등을 연결해 요동도사 방어체제를 유지하려는 마지막 전략적 대안이었지만 대내외적 원인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못함으로써 그 방어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실패하였던 것이다.

5. 結 論

명은 건국 직후 旅順, 金州 등 遼東의 남쪽, 곧 遼南 지역 점거를 시작으로 遼東都司 防禦體制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크고 작은 몽골 세력을 제압하면서 遼河 동쪽의 중심이 되는 遼陽, 瀋陽 등을 점거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衛所 중심의 방어체제를 형성하여 나갔다. 그리고 최대의 北元 세력 納哈出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遼西로 진출하여 山海關을 요동과 연결시키고 25衛 體制를 수립한 후 驛路, 驛站, 屯田 등 방어체제 전반을 정비하는데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명은 내몽골, 鴨綠江, 松花江, 豆滿江 그리고 黑龍江 유역으로 진출하여 元代 遼陽行省 지역까지 관할 지역을 확대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선 遼東都司를 遼東의 중심에 두고 강력한 방어체제를 구축하여야 했으며, 이를 위해 都司 內地에 각종 크고 작은 城堡의 수축, 35개의 驛站網, 물자를 수송하는 遞運所, 공문을 전달하는 急遞鋪, 山東으로 연결되는 海路의 확보, 遼河를 통하는 河運 등 遼東都司體制의 전반적인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명의 계획대로 遼東都司 방어체제는 조직되었으나, 몽골지역과 여진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시도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없었다. 우선 遼東都司의 영향력으로는 여진과 몽골지역에 대규모의 군대를 주둔하거나 물자를 원활히 공급할 수가 없었다. 당시 遼東은 농업생산량 및 군사력이 풍족하지 못했고 山東으로부터 모든 물자를 공급받아야 했으며, 明 中·後期에는 海禁 등으로 山東과의 교류가 축소되어 遼東 경제가 타격을 받는 등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더구나 몽골과 여진으로 통하는 교통은 더욱 불편하여 초기부터 元代의 遼陽行省 지역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실현되기 힘들었다. 명은 결국 대외적으로 팽창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몽골과 여진 등은 성장기에 있었기 때문에 遼東都司 體制를 강화시켜 그 방어선을 보호하는 쪽으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초기 여진 지역에 설치하려했던 鐵嶺衛, 東寧衛, 三萬衛 등이 遼東都司 25衛 체제 속으로 편입된 것은 요동도사의 군사적 한계력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永樂年間 5차의 몽골 親征을 통해 北邊과 遼東都司에 대한 몽골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흑룡강 등의 여진지역에 奴兒干都司와 180여 개의 女眞衛所를 설치함으로써 遼東都司의 영향력을 吉林과 黑龍江 지역으로 일시 확대시키는 듯하였다. 그러나 奴兒干都司 역시 여진과 관련한 초무 등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宣德年間 遼東都司로 흡수되었으며, 女眞 역시 建州衛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해 감으로써 鴨綠江, 豆滿江, 黑龍江, 松花江에 이르는 넓은 지역은 명 遼東都司가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지역이 되었다.

永樂年間 이후 遼東都司는 더 이상 대외적으로 팽창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遼東都司라는 폐쇄된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遼東政策을 시행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遼東都司의 변화와는 달리 몽골과 여진 등은 방어선 밖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大同, 宣府 등의 長城 지대 및 遼東을 계속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遼東都司는 기존의 遼東

防禦線을 견고히 연결시켜 방어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변화를 계획함으로써 遼東邊牆의 수축이 시작되었다.

遼東邊牆은 明 前期에 이미 축조가 시작되어 後期까지 지속적으로 수축 정비되었는데 크게 세 지역, 곧 遼西邊牆, 遼河套邊牆, 遼東邊牆으로 구분되었다. 그 길이는 800km가 넘었으며, 93개의 城堡와 1,146개의 墩臺 등 다양한 방어시설물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遼東邊牆의 修築은 전략적 계획에 기초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수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방어선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우선 대외적으로 遼河套 지역은 서몽골 也先의 兀良哈 3衛에 대한 공격과 兀良哈의 남침으로 상당수 몽골인들이 遼東 북부邊牆을 위협하고 있었고, 여진과 더불어 開原·瀋陽·撫順城 등 遼東都司 內地까지 대대적으로 침략함으로써 遼東都司의 방어력을 약화시켰다.

대외적 어려움 외에 遼東都司는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초기 자급자족할 정도로 생산되던 屯田은 衛所兵의 이탈, 遼東 관리들의 토지 침탈, 과중한 부역으로 인한 인구의 도망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더욱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많은 요인들을 지니고 있었다. 군사력의 근간이 되는 인구감소의 원인으로는 주로 遼東賦役의 과중함, 전염병·홍수·가뭄·폭설·해충 등의 자연재해의 위협, 북방으로부터의 미미한 人口壓力, 遼東都司의 人口增加政策의 失敗, 遼東의 지리적 특수성,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로써 明初 遼東都司 防禦體系가 형성될 당시의 인구규모인 40~50만의 遼東人口는 후기로 갈수록 감소하였다. 군사력의 중추인 戰馬를 관리하는 馬政 역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戰馬의 숫자는 나날이 감소하여 明 後期에는 明 初期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전투력의 약화라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遼東防禦體系가 붕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

요약하면, 明代 遼東都司는 極東 지역에 위치하며 9邊의 重鎮을 구성하면서 北邊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로서 출발하였으며, 그 중요성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전략적 정책들이 지원되고 시도되었다. 永樂

年間に 遼東都司의 관할범위를 최대한 확장시키는 등 일시적으로 발전적인 시기도 있었으나 내부적인 역량의 한계 및 몽골 여진 등 대외세력의 성장과 위협 등으로 소극적 방어전략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다. 명은 최후로 遼東邊牆의 修築으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하면서 방어체제를 강화시키고자 하였지만 방어기능마저 약화되었다. 그리고 明代 後期가 되자 遼東都司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 한계력을 보이면서 이미 遼東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都司'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 明 後期 몽골과 女眞은 通婚 등의 연합을 통하여 北邊과 遼東을 위협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원고투고일 : 2007. 1. 15,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요동, 요동도사, 요하, 여진

<ABSTRACT>

Liadongdusi(遼東都司)'s Defense System and decline in Defense Power in *Ming*(明) Dynasty

Nam, Eui-hyeon

Ming dynasty devoted all his strength to enhance *Liadong's* Defense System right after founding a state. This enabled *Ming* Dynasty to succeed in occupying the eastern central area of *Liao*(遼) River and to build up the defense system. *Ming* also could extend to *Liaoxi*(遼西) after defeating the strongest power of Mongol, and then tried to extend his influence up to *Jilin*(吉林) and *Heilong River*(黑龍江).

Contrary to *Ming's* plan, however, it was difficult to have a power over the area of Mongol and *Jurchen*. First, it was not easy to supply goods. *Liadong* was not enough agricultural production at those ages, and all goods were provided from *Shandong*(山東) due to the inconvenience of overland transportation.

Finally *Ming* recognized that there were too many limits to extend their power outside, and set up the strategy to enhance *Liadongdusi's* Defense System. The change of *Ming's* strategy caused Mongol and *Jurchen* in frontier district to escape from *Ming's* influence and to grow up to be a strong and independent power.

Liadong Defense Line, about 2000-*li*(里)'s length, had been constantly repairing and maintaining until the latter period of *Ming* Dynasty. Although the repair and maintenance were performed on the basis of strategic plan, *Liadong* Defense Line could not play a role as a firm defense line. Defense

power of *Liadongdusi* revealed its weak point in facts that *Liaohetao*(遼河套) was threatened from Mongol's attack and the major communities including *Jurchen* were invaded on a large scale.

Facing with foreign difficulties, *Liadongdusi* showed its inner conflict as well. Defense system got weaker and weaker due to the decrease of military provision, which result from soldiers' flight, officials' occupation of lands and overweight labor. Population also decreased due to the overweight labor, natural disaster such as infection, flood, drought, vermin, heavy snowfall, failure in population increase policy and geographic feature of *Liadong*. Therefore, the initial population that reached at 40~50 million decreased sharply, and the number of military horses also decreased day after day. These brought about weakness of fighting power, and resulted in the main factor of breakdown of defense system.

To sum up, *Liadongdusi* was an important military base which constituted The Great Wall, so every policy was attempted and supported nationally. There was a developmental period once when *Liadongdusi* enlarged its influence power during *Yong-le's* period. But after his death, it was changed to negative defense. *Liadongdusi* could not have influence on outside any more by changing strategy through repair and maintenance of *Liadong* Defense Line, therefore, the foreign function of *Liadongdusi* became weaker than ever before. At last, in the latter period of *Ming*, *Liadongdusi* degraded to the formal organization that had lost dominant power, while Mongol and *Jurchen* that grew enough to threaten *Liadong* and northern area were emerging as a new master who could replace *Liadongdusi*.

Key Words : *Liadong*(遼東), *Liadongdusi*(遼東都司), *Liao* River(遼河), *Jurchen*
(女真)